



이념굴레 벗은 한핏줄의 이해절실

통일운동의 현황과 문화동질성 회복

최근 분단 반세기를 뛰어넘으려는 남북 쌍방의 끊임없는 노력이 동구권의 해빙과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힘입어 그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평화통일을 전제로 한 남북 협상과 교류가 여러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운동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은 상당히 다르다. 주로 파생물이나 재야, 순수한 이념적 화구와들에 의하여 토로되고 있는 통일논의는 운동적 측면을 띤 것으로서, 분단의 근원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필요로, 6.25의 재조명 및 남북 문제, 양대진영의 이념이나 제도적 차이, 동구권의 해빙이나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등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가하면서, 보다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이상적 통일논의의 전개를 의미할 것이요, 또 다른 면의 하나는 남북 권력구조에 의한 제도권 정책에 따른 남북 협상으로서의 매우 현실적인 노력을 의미할 것이다.

전자가 운동으로서의 역사적 의미가 아니라 이념적이지 않다면, 후자는 현실적, 실무적 권력유지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현실에 대한 타협이라 할 것이다. 통일논의는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하고, 다만 그것이 현실적 실효를 거두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남북 협상이나 교류의 경우 정부 단일화한 민주적 방식이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야나 운동권의 운동성 강화의 논의도 계속 추구되어야 하고, 민간차원의 기능주의적 접근(경제교류나 스포츠교류 문화교류같은 것)에 의하여 상호 실정과 이해의 증진이 시도되면서, 제도권 권력관계에 의하여 풀 수 있는 법률상의 문제, 군축문제, 평화협정문제 등 본질적인 분단의 근원 해소에 대한 정치적 협상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 요소가 합리적으로 추구되지 않고, 기능적 접근에 의하여 스포츠교류나 문화

교류 종교교 및 이산가족 상호방문 등이 진행된다면, 위법상의 문제에 의한 상호 자승자하의 모순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물론, 비정치적인 것, 경제나 문화, 스포츠나 종교교의 교류에 의해 상호 이해가 원활해진 다음 본격적인 것, 군사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갈등 해소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비교적 그동안 전개된 통일논의를 보면 남북은 기능적 접근부터 점진적으로 전개하자는 완만 온건한 노선이고, 북쪽은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정치적 군사적 합일점을 찾아 그 분단의 제약을 되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음에 기능적 접근을 하자는 입장이었다. 통일하자는 입장은 같지만, 그 방법론이나 순서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재야나 학생운동권에서 제기하는 민족주의적 통일논의는 단순한 기능적 접근이나 교류보다는

회의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의 식견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도전양식의 변화'라고 생각된다. 자본주의가 있는 한 사회주의는 영원한 도전자로서 존속할 것이요, 설사 소련이나 동구권이 그 사회주의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대해지면 한 사회주의의 도전은 있다. 그쪽 사회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쪽 입장에서 보아줄 수 있어야 한다. 북한 기행기를 쓴 소설가 황석영씨가 그 기행록의 제목을 '사람이 살았을 때'라 한 것을 곱씹어 생각해 보자. 얼핏 생각하면 얼마나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 발상인가. 하지만 반공교육의 무서운 고정관념이 수정되

통일논의는 다양히 전개되어야 하며, 다만 그것이 현실적 실효를 거두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뿐이다

거의 속명처럼 존재하리라 생각 한다. 경제발전-그것도 성장만을 염두에 두고 비교우위론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사유재산에 대한 욕구나 경쟁심리, 시장경제의 필요성을 보완하고자해서 그것을

지 않는 한 북한은 적어도 북은 도깨비 소굴이지, 사람 사는 사회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작가 황석영씨가 그쪽의 입장에서 그쪽 사회를 들여다 보니, '사람' 그도 '사람다운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 보다 나은 면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동포가 살고 있다는 것만 아닌 감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기행록 수록 편집자를 구속하여 실행을 주기도 했거니와, 그러한 불상자의 소지가 법률적으로 상존한다. 어떻게

정부 창구 단일화에 의한 협상·교류는 비민주적 방식 통일논의 활성화와 문화적교류등 다각적 전개 필요 군축·국보법 철폐등 분단의 근원적 요인 제거부터 선행돼야

북쪽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분단의 근원에 대한 제거작업-원칙리트-중지, 주한미군철수문제, 군축문제,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 평화협정으로의 교체 문제 등을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상과 같은 통일논의의 성격 을 두고 생각할 때, 분단의 요인 상호 전가시켜 버리려 하지만, 실상은 분단의 근원이 제거되지 않은 데서 상호모순이 노출된 것이요, 앞으로 전개될 그와 비슷한 모든 방법이나 교류도 그러한 모순을 내포하게 될 것이다. 경제교류를 내세우는 재벌들은 상품시장적 이해타산에서 말미암

다. 그들이 반세기 동안 어느 면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해 있는 데, 우리쪽의 출범한 상품이나 자가용의 행렬을 보고 자라는 사회화한 것만으로도 이르는 않을 것이다. 그들 나름대로 도덕과 이념, 인간다운 삶의 척도, 인간의 행복의 기준에 대하여 일정량의 사고를 하고 있었다면, 일시 공산권 방문자가 달라를 뿌리며 호기를 부리고 와서 우리는 공산권보다 몇 배나 잘산다고 안심하게 낙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된다. 또,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발표이후 사회주의권이 공산권이 와해되거나 포기 내지 퇴조해버린 것처럼 자본주의의 지상론으로 결론지어, 마치 이쪽 사

회주의의 포기나 퇴조로 볼 수 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페레스트로이카는 공산권만의 것이 아니고, 군수산업에 많은 이익을 노리고 있는 제국주의적 성향의 자본주의권의 평화정책에 따른 세계적 경제질서, 이념적 정치질서에 대한 반성과 재조정이 아울러 행해져야 된다고 본다. 북한과의 교류도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그쪽의 정치나 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도와줌으로써 아울러 공존의 평화시대 통일성취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공논리에 대한 반성을 필요로 극우적 성향의 사고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산권 사회나 북한을 보는 우리들의 시각조정이 필요

북한에서 음악 연주를 같이 할 것인가. 그러기때문에 단순한 교류 이전에 제도 장치에 따른 법규나, 잘못된 우리의 반공적 고정관념의 수정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반세기 동안이나 완전히 다른 환경속에서 이질적인 정치 경제 도덕 문화를 향유해온 만큼 그 멀어진 간격이 몇번의 방문이나 회의로써 메꾸어질리는 없다. 수 많은 노력과 시도에 의해서 조급성 성취되어 간다면, 반드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남과 북이 만나는 필연적 일치점이 도래할 것이라 생각한다. 남북이 상이한 문화권(생활권)이지만 동일한 민족주의적 노선이 있다. 한겨레 한 민족이요, '조국은 하나다'라는 소박한 민족의식이 있다.

북한에서 음악 연주를 같이 할 것인가. 그러기때문에 단순한 교류 이전에 제도 장치에 따른 법규나, 잘못된 우리의 반공적 고정관념의 수정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반세기 동안이나 완전히 다른 환경속에서 이질적인 정치 경제 도덕 문화를 향유해온 만큼 그 멀어진 간격이 몇번의 방문이나 회의로써 메꾸어질리는 없다. 수 많은 노력과 시도에 의해서 조급성 성취되어 간다면, 반드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남과 북이 만나는 필연적 일치점이 도래할 것이라 생각한다. 남북이 상이한 문화권(생활권)이지만 동일한 민족주의적 노선이 있다. 한겨레 한 민족이요, '조국은 하나다'라는 소박한 민족의식이 있다.

북학풍성

강의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서구적인 여학생들의 언어는 자못 긴장된다. 누구누구의 사건 행동형이상학적 표현의 내재는 스타일 모드의 외연적인 속살로 드러난다

결심한 듯 모두는 한꺼번에 사라진다

빈 강의실 책상위로 햇빛 몇장이 공회

비둘기처럼 흩어진다

그해 충성을 위해 보냈던 고향

섬진강을 지나

가을 연못

가파른 나뭇

지리멸렬한 조직의 해체를 길으며

불운한 행복을 꿈꾸면

정액내세 우거진 아카시아

길

짧은 치마속

건고있는 심실한 허벅지 사이

태연한 지고

가로수

정거장 길에 뿌려진

단순한 웃음

건물들 사이 하늘에

아무런 것도 없었던 눈빛으로

대기리를 흔들면서

부서지고 싶은 대기리

전차길을 건너던

신동엽을

떠올리며

전차길을 건너

버스에 오른다

안 만식

윤근대 장편·3

미팅이야기

자연이 선사한 최고의 섬유-메리노 울

올마크 드리는 약속

올마크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올마크를 확인하십시오. 세계 130여개국에서 사용되는 올마크는 100% 순모로 정성껏 만들어진 '폴리우울' 마크입니다.

언제나 도맡은 킹카

후사나 했더니 역시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애와 함께 미팅을 할 때면 내게는 남학생들의 눈길이 전혀 오질 않는가야. 역시 그애한테만 계속 관심이 집중되는 거 있지. 이유 속상해. 내가 어디가 어때서 오목한 코에 살짝 보이는 보조개, 몸매도 이만하면 어디가서 안빠진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그애의 세련미, 그리고 우아함에는 같은 여자인 나도 반해 버릴 정도야. 부드러우면서도 독특한 분위기, 그 상큼한 매력. 도대체 비밀이 뭐가? 혹시 그애가 즐겨 읽는 메리노울 때문이 아닐까?

패션감각이 뛰어난 메리노울

메리노울은 드레이프성이 뛰어나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메리노울만의 부드럽고 우아한 광택, 세련된 색상으로 현대적인 패션감각에 가장 잘 어울리는 순수 자연섬유입니다.